

욕망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선 연대·공존

광주시립미술관 '희망 대신 욕망'展...내년 3월2일까지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일환 12팀 작가 참여 문화예술로 품어낸 소통과 공감...벽을 깨고 하나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내년 3월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3, 4전시실에서 열리는 '희망 대신 욕망' 전시다. 광주와 타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24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일환으로 12명(팀) 작가와 함께 한다.

여기에는 올해 장애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펼친 양경모, 전동민, 이혜선 작가가 포함돼 있다.

양경모 작가는 고도 근시로 사물을 자세히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상상력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작품을 표현했다.

전동민 작가는 도시의 야경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삶의 복잡성과 조화, 외면과 내면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이혜선 작가는 속도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 대한 반문으로 '느리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의도를 거북이의 다양한 변형으로 구현한다.

이번 전시는 나와 다른 존재를 가진 이들을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선의에서 비롯된 시혜적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울러 장애가 있는 이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들여다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욕망'에서 찾는다.

'욕망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권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에 주목한다.

첫 번째 섹션 '뜨거운 욕망: 존재 드러내기'에서는 이혜선, 기대용, 김현우(픽셀 김), 정은혜, 유태환 작가가 고유한 조형언어를 통해 각자의 욕망과 내면세계를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다.

두 번째 섹션 '새로운 감각세계: 경험 공유하기'에서는 김은정, 전동민, 양경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감각적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감각세계를 관람객

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의 작업은 결핍의 서사가 아닌, 고유한 감각과 내면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경험의 산물이다.

마지막 섹션 '연대와 공존'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으로 김산탈과 주홍의 사이프로젝트, 라움론과 강수지&이하영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한다.

나양재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대리는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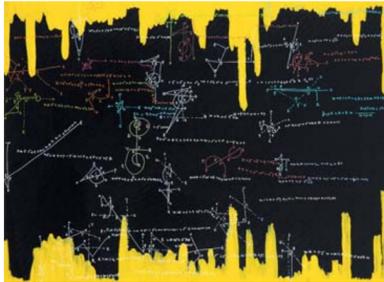


사진 위로부터 유태환작 '길', 픽셀 김작 '번개 수확대로임', 이혜선작 'Freedom'

전시는 '당사자성'이란 무엇인지, '상호 돌봄'이란 어떤 과정인지 질문을 던지며 변방에서 시작된 시선으로 새로운 관계와 공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무등기행도'

'無等', 찬란한 기운을 담다

조양희 개인전, 오는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무등산'을 소재로 우리 산수의 맑은 정신과 감성을 담아낸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한국화가 조양희의 6번째 개인전 '화첩에 무등을 담다'가 오는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조양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남도의 모산(母山)인 '무등산'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이 가르쳐준 실경산수의 현장감과 신선함을 생동감 넘치는 붓터치로 선보인다.

풍요로운 가을 정취의 무등산과 붉은 꽃무릇이 만개한 환벽당, 커다란 보름달이 비추는 규봉암 등 자연에 대한 그의 시각은 당당하면서도 실제적이

다. /최명진기자

는 작가가 산행하며 그렸던 화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섬세한 필치와 담백한 수묵으로 무등산 풍경과 인물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았다. 수려한 경관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부감법(俯瞰法)으로 드넓게 펼쳐진 무등의 전경을 그려냈다.

병풍처럼 우뚝 솟은 서석대를 중심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관계자는 "무등산의 '무등'은 등급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또한 없다는 뜻"이라며 "우리 모두의 산,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이번 전시를 통해 무등의 찬란한 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展 - 화폭與동락'

20일부터 ACC 대나무정원

(사)광주미술협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동행展-화폭與동락' 협력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품격 있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고근호, 김해성, 정정임 등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20명이 참여해 회화 60여점과 조각(조형) 10여점 등 총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전시를 통해 광주 미술의 정체성과 현재를 탐구하며, 관람



백광우작 '우리 소망 꽃처럼!'

객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동·서양 뉴미디어아트로 '미래가 된 산수'

미구엘 슈발리에·이이남 콜라보 전시...내년 3월16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프랑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미디어아티스트가 만나 동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미래의 자연을 선사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내년 3월16일까지 미구엘 슈발리에, 이이남 작가 콜라보 전시 '미래가 된 산수'를 개최한다.

미구엘 슈발리에의 자연과 기술, 인간과 환경 관계를 탐구하며 미래 지향적 예술을 창조하는 프랑스 대표 디지털 예술의 개척자다. 이번 전시에서는 '메타 네이처 AI', '엑스트라-내추럴', '플라워 파워' 세

개의 가상정원을 선보인다. 작가는 '실제 자연'과 인류가 창조한 '기술적 자연' 사이 공존에 주목해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인공 낙원을 표현해냈다.

한국의 대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은 전통 산수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폭발하는 산수', '진동하는 산수', '미래가 된 산수'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사의적(寫意的) 풍경을 펼친다. 전시에서는 사라져 가는 산수의 형상 속 여백을 발견하게 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두 작가가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창조한 미래의 자연과 산수화를 통해



이이남작 '미래가 된 산수'

독창적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양, 전통과 현대를 기술로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남도 밥상

을 지키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